# “AI는 문명 과정…선하게 활용돼야”

**7월 20일 종무원 ‘AI 특강’ 진행**
**진우 스님·하정우 전 비서관 대담**
**하정우, 특강서 불교 AI 활용 제안**
**“양질 불교데이터 학습 필요” 강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1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초청 강연에 앞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정승채 디지털미디어국 차장

“인공지능(AI)은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AI 역시 흘러가는 하나의 문명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대담에서 AI 기술에 집착하거나 현혹되기보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종단이 양질의 불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AI에 학습시키고, 이를 포교와 전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진우 스님은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초청 조계종 종무원 대중 강연’에 앞서 하 전 비서관과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에서 진우 스님은 AI를 현대 과학기술의 결과물이자 불교의 마음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진우 스님은 눈·귀·코·혀·몸·마음의 ‘육근’과 색·성·향·미·촉·법의 ‘육경’, 이를 인식하는 육식이 합쳐져 18계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내가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게 하는 ‘나’라는 집착의식이 말나식이며, 그 근본에는 지나온 모든 시간이 축적된 아뢰야식이 있다. AI 역시 이러한 인식과 정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회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AI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문명과정”이라며 “현상적인 것은 무엇이든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기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모든 현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즐거움과 괴로움, 태어남과 죽음,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이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 AI 역시 편리함과 부작용을 동시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을 인용한 진우 스님은 “AI든 무엇이든 선(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며 “AI가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고 이용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무원들에게도 AI시대에 대응해 나갈 화두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엄청난 불교 정보를 잘 입력해 학습시켜야 한다. 좋은 것을 많이 학습시켜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AI를 통해 불교의 장점을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종단과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담 이후 ‘AI, 한국불교 미래를 얘기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하 전 비서관은 한국불교가 축적해 온 경전과 법문, 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불교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불교 전문 AI’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하 전 비서관은 “현재의 범용 생성형 AI는 불교에 대해 잘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질문하면 환각과 잘못된 답변이 빈번하다. 불교를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가 보유한 아날로그 자료를 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음돌봄에 종교계 합심”

**유흥식 추기경, 진우 스님 예방**
**‘종교 사회적 역할’ 주제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흥식 추기경과 마음돌봄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갈등이 깊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마음평안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의 예방을 받고 마음돌봄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진우 스님은 “종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 만큼 사건·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종단 지도부들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사회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을 돌보고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데 종교계가 합심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종교가 국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흥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레오 교황을 보좌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다고 소개하며 “한국에 오면서 종교계 여러 어른들을 만나 공동의 가치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돌보고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종교의 중요 역할이라는 데 공감했다. 유 추기경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현희 기자

# 종단협, 한중일대회 등 하반기 사업 확정

**7월 20일 2차 이사회 개최**
**성지순례 장소 라오스 결의**




한국불교종단협회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과 세부 사항 등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정원 35명 중 참석 32명, 위임 3명으로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종단협은 오는 10월 20~22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리는 제26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연설자 배정과 예산안 5억 6850만원을 확정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연기됐던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는 11월 24~28일 4박 5일 간 라오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 이사 종단인 조동종의 총무원장이 덕우 스님에서 지원 스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정된 ‘임원 변경의 건’은 원안통과 됐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비를 미납한 미타종은 준회원으로 강등 후 올해 12월 이사회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회원으로 복귀하되 미이행할 경우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이사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의 발의로 상정된 사무처장 해임 요청에 대해 회장단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제기된 문제를 참작해 대중 참회를 권고했다. 이에 사무처장 탄웅 스님은 종단협 이사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고 참회했다.

내년 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무총장 추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추천은 9~10월경 입후보자 공지와 접수가 이뤄지며 정관에 따라 11~12월에 복수 인사가 추천돼 12월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회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동아시아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종단 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 위촉

**7월 23일, 남철우 회장 등 4명**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올바른 언론문화 정립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한 불교언론문화상의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언론문화상 위촉직 운영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이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장 정운 스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운영위원으로는 남철우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김경달 전 네이버 동영상서비스실장, 임성희 프리랜서 작가가 위촉됐다.

진우 스님은 “과거에는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방송과 미디어, 언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며 “불교의 목적은 결국 스스로를 완벽한 평안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언론이 그 역할을 맡아 모두가 평안하고 부처가 될 수 있게 전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후보작을 접수하며, 시상식은 11월 열릴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